

미래엔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www.m-teacher.co.kr
edu.donga.com

미래엔의 교수 활동 지원 플랫폼
Mirae N 센터
www.m-teacher.co.kr

vol.26 | 2018년 12월호

교육 초대석

교육계 주요 인사 혹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교육 철학을 들어보며 앞으로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봅니다.

지난 11월, 3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대에서 열린 '2018 UN청소년환경총회'의 주제는 '환경과 건강'이었다. 미세먼지와 이상기후, 플라스틱 쓰레기 등 환경문제가 어느덧 인간의 삶과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의제였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대표단은 전원이 초중고생으로 이뤄졌다. 그래서 대표단의 토론은 더 뜨거웠다. 이들에게 환경문제는 더 이상 교과서 속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각자의 삶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일상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다.

환경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환경교육의 중요성 또한 높아졌다. 특히 환경교육은 조기교육일수록 효과가 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이 절실하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환경'은 여전히 주요 교과목에 밀려 뒷전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교 현장에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환경교육의 새 바람을 몰고 온 곳이 있다. 바로 앞서 UN청소년환경총회를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과 함께 주최하는 사단법인 '에코맘코리아'다. 지난 2009년 설립된 에코맘코리아는 정부기관 및 기업과 협력해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환경을 주제로 한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교육 및 교구를 개발하고, 청소년 및 교사 대상 환경교육을 하는 단체다.

미세먼지가 서울 하늘을 뒤덮은 어느 하루,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에코맘코리아 사무실에서 하지원 대표를 만나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방향'에 대해 묻고 들었다.



“마케터, 의사 등 어떤 꿈을 꾸더라도 환경교육은 중요”

우선 환경운동과 환경교육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10여 년간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에 몰두해

온 하 대표에게 환경교육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하 대표의 답변에 ‘환경’은 없었다. 뜻밖에도 그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끌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란 답을 내놨다. 환경을 보존하고 지켜가는 것도 결국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인 만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가치를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실천적 리더의 존재가 중요하고, 이를 키워내는 것이 바로 환경교육의 목적이라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경교육이 환경에 관심이 많은 소수를 위한 교육에 머물러선 안 된다. 특히 미래 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에게 환경교육은 더욱 필수적이다. 국가와 정부기관, 기업 등 모든 사회 주체의 화두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모이고 있기 때문. 하 대표는 “환경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환경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면서 “헤어 디자이너, 마케터, 의사를 꿈꾸는 학생에게도 환경교육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케터를 꿈꾼다고요? 환경에 대한 철학이 분명한 마케터라면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제품의 친환경성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획된 제품은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가 될 것이고요. 그럼 소비자는 ‘친환경 제품’에 더 주목할 겁니다. 여태까지와 달리 앞으로는 모든 사회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니까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녹색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하 대표)

어른은 바뀌기 어려워도, 아이는 바뀐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환경교육의 한계는 여전하다. 환경을 위해서는 대개 귀찮음과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환경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일반 성인에게 매일 쓰던 일회용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갑자기 쓰지 말라고 한다면, 한두 번은 동참하더라도 이내 포기하기 쉽다. 이미 형성된 가치관 속에 환경이 새로 끼어들어 자리 잡기 어렵고, 생활습관 또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년은 다르다. 청소년에게는 이러한 노력이 ‘바꾸어야만 하는 습관’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던 당연한 습관’이 될 수 있다. 물론 교육을 통해서다.

하 대표는 그 예로 예코맘코리아에서 ‘글로벌 에코리더’ 교육을 받은 한 초등생의 일화를 소개했다. 부모의 심부름으로 컵빙수를 사러 갔다가 가게 주인과 ‘일회용컵에는 받을 수 없다’며 실랑이를 벌였다는 것. 하 대표는 “가치관이 막 형성되는 시기의 아이들은 본인 스스로 옳다고 믿는 신념이 한 번 생기면 그에 따라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지속하고, 주변까지 바꾸려 노력한다”면서 “실제로 교육을 해보면, 성인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들이는 노력과 시간 대비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문제, 불편한 것이 되어서 안 돼”

하지만 무작정 환경교육을 한다고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 대표는 “환경교육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당위성을 내세운 논리나 의무감만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을 위한 변화와 행동이 마치 꼭 해야만 하는 숙제 처럼 느껴지면 길게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

하 대표에 따르면, 환경교육은 환경문제를 자신의 삶의 문제로 느끼게끔 하는 과정이 지렛대가 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환경문제를 나의 문제로 깨닫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체험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지금과 같은 대기오염이 지속될 경우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 문자 학생들이 ‘방독면을 쓰고 살아야 돼요’라고 대답했다고 칩시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환경교육의 일반적인 다음 수준은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저희 프로그램에선 실제로 학생들에게 방독면을 쓰고 달리기를 해 보게 시킵니다.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위해성을 피부로 느낀 학생들의 실천 의지는 환경문제를 머릿속으로만 그려본 학생들과 확연히 다를 테니까요.”(하 대표)

물론 이토록 입체적인 환경교육을 하기에는 학교 현장의 여건이 녹록치 않다. 인력도, 자원도, 예산도 모두 부족하기 때문. 이에 하 대표는 “환경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그룹이나 NGO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면서 “학교에서 교사가 직접 하기 어렵다면, 자유학년제를 발판 삼아 환경교육 전문가그룹을 적극 활용해 보라”고 조언했다.

“더욱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 에코맘코리아도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직접 교육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지역 내 단체에게 저희의 프로그램과 노하우를 전수시켜 주고, 이들을 기반으로 환경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은 교사 여러분과 함께 보다 내실 있는 환경교육을 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하 대표)

▶글·사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